

“덥다, 더워”…폭염에도 강행된 예비군 훈련에 ‘원성’

35도 넘는 무더위에 2박3일 입소 광주 훈련장 에어컨·정수기 고장 달궂진 K-2소총 쉽게 못 만질 정도 “전투복에 방탄모 쓰니 미칠 지경” 군 당국 “최선 다해 훈련일정 조정”

“이른 아침인데도 햇볕이 너무 뜨겁고 덥네요, 얼음물도 소용없어요.”

지난 8일부터 사흘간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시행된 예비군 동원훈련.

당시 하루도 빠짐없이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원훈련이 진행되자 참가한 예비군들은 참다 못해 분통을 터뜨렸다.

8일 낮 12시부터 동원훈련이 시작된 훈련장 연병장은 이미 35도가 넘는 폭염으로 인해 아지랑이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예비군들은 “벌써부터 숨막힌다”, “이 날씨에 진짜 훈련하는게 맞냐”며 불멘소리를 냈다.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 입소식은 실내에서 진행됐으나, 이미 수백 명이 넘는 예비군들로 인해 건물 내부는 밖과 별 다름없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폭염이 지속된다는 예보가 있는데 굳이 이런 날씨에 예비군 훈련을 해야 하나”는 예비군들의 대화에 조교들은 “혹서기인 7월 말부터 8월 첫 주까지 단 2주 동안만 예비군 훈련이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예비군 훈련 소집은 폭염과는 관계없이 오직 정해진 날짜에만 중단된다는 것이다.

입소식을 기다리는 예비군들은 두꺼운 군복을 펄럭거리거나 종이로 부채질하면서 “덥다, 더워”란 말을 반복할 따름이었다. 다행히 이날은 더운 날씨로 인해 대부

분의 야외 훈련은 진행되지 않았으나 예비군들이 머무는 생활관이 말썽을 부렸다.

몇몇 생활관에 에어컨이 가동이 되지 않은 것. 여기에 땀을 너무 많이 흘린 예비군들은 정수기 앞으로 몰려들었으나 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도 발생했다.

조교들은 “예비군들이 생활에 불편한 점들이 있다면 즉시 조치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미 첫날부터 예비군들은 지칠대로 지칠 수밖에 없었다.

입소 이틀째인 9일,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군 당국은 오전 일찍 사격 훈련을 실시했으나 이미 오전 6시께부터 광주·전남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뒤였다.

예비군들은 뜨거운 태양 속에서 사격장까지 도보로 이동하느라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전투복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조교들은 폭염에 대비해 천막과

얼음물 등을 준비했으나 예비군들의 흐르는 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사격을 기다리는 장소도 문제였다. 그늘조차 없어 예비군들은 땀병에서 마냥 앉아서 기다려야 했고, 사격 진행시에도 K-2소총은 뜨거운 햇볕에 총열이 달아올라 쉽게 만질 수도 없었다.

심지어 사격을 늦게 시작한 중대에 소속된 예비군들은 30도가 넘는 상황에서 훈련을 진행해야 했다.

오후에는 온도가 35도까지 올라 더 이상 야외훈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군 관계자들이 야간훈련을 진행했다.

다만 밤에도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으로 인해 무더위는 계속됐고 예비군들은 강행되는 훈련 속에 고통을 호소했다.

소총수 이진성(26)씨는 “이런 무더운 날씨에 두꺼운 전투복과 방탄모를 쓰고

훈련에 참여하니 미치도록 덥다. 조금 어지럽기도 했다”며“야간 훈련도 더위를 해결하기에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훈련 4년 차인 한 예비군은 “이 폭염에 다인용 텐트를 치는 등 여러 훈련을 하다 보니 땀이 안 날 수가 없다. 밤에는 햇빛이 없어 관참을 줄 알았지만 큰 착각이었다”며 “아무리 혹서기 기간이 아니라 해도 폭염경보가 며칠째 이어지는데 훈련을 하는 것 무리다. 다음부터는 날짜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예비군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훈련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이런 폭염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내년 일정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정준 기자 jeongjune.lee@jnilbo.com



지난 11일 오후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의 한 주차타워 4층에서 택시가 지상으로 추락했다.

광주 북부소방 제공

외벽 뚫고 택시 지상으로 추락·흥기 휘두른 50대 긴급체포

주말 사건사고 종합

사찰서 3m 낭떠러지에 차량 걸쳐 목포서 49톤 어선 불…인명피해 없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광주·전남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사찰 주차장에서 차량이 낭떠러지에 걸렸고 주차타워 외벽을 뚫고 택시가 지상으로 추락해 60대가 다치기도 했다. 신안군에서는 동료 선원에게 흥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히고 목포시 부두에 계류중이던 어선에서는 화재가 발생했다. 주말간 지역의 사건사고를 정리해본다.

●광주·영광서 추락사고 연이어 발생

전라남도 영광의 한 사찰 주차장에서 차량이 낭떠러지로 추락되기 직전에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2일 오후 2시42분께 영광군 군남면의 한 사찰 주차장에서 “차가 추락할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를 포함한 3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모두 자력으로 대피했다.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대피 과정에서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광역시시의 한 주차타워에서도 택시가 외벽을 뚫고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60대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지난 11일 오후 3시25분께 북구 일곡동 한 주차타워 4층에서 택시가 외벽을 뚫고 밖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 60대 남성 A씨가 경상을 입어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으며, 행인 등이 다치는 2차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나 음주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목포·신안서 화재 사고, 흥기 휘두른 50대 긴급체포

지난 12일 오후 11시35분께 목포시 북항 1부두에 계류 중이던 49톤 어선에서

불이 났다.

목포해경은 인근 파출소와 경비함정 등을 급파, 민간선박을 동원하고 소방과 합동해 5시간32분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조타실과 기관실 일부가 소손되는 물적 피해가 발생했으나 인명 피해와 주변 해양오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기관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11일에는 동료 선원에게 흥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동료 선원에게 흥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B(57)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19분께 신안군 재원도 서쪽 약 29km 해상에서 동료 선원 C(47)씨에게 흥기를 휘둘러 요구리에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C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에 대해 조사 중이다.

정유철·이정준·정승우 기자

5·18단체 “전두환 찬양 ‘리박스쿨’ 관계자 처벌해야”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 기념재단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찬양한 ‘리박스쿨’ 관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13일 3단체에 따르면 최근 이들은 성명을 내고 “리박스쿨이 전두환을 찬양하고 5·18 왜곡 교육을 한 것은 심각한 역사 왜곡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극우적

역사관 주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정부는 국가폭력에 의한 명예 회복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해 희생자 가족들의 2차 피해를 예방하라”고 강조했다.

전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관련 인사들은 전두환 명예 회복, 김대중·노무현 재단·세월호 우상화 붕괴 등을 계획하고 논의한 사실에 대해 질타받았다.

정승우 기자

‘폭염’ 대신 호우주의보, 광주·전남 최대 150mm비

화요일까지 바…일부지역 소강상태

광주·전남의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많은 비가 예보됐다.

13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4일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최저기온은 20~23도, 최고기온은 28~32도가 예보됐다.

이날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30~80mm의 비가 예보됐으며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이어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겠다.

화요일인 15일 역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최저기온은 21~24도, 최고기온은

28~30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이날까지 비가 내릴 것을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으며 장소에 따라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16일 수요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최저기온은 22~24도, 최고기온은 27~30도가 예보됐다.

이날까지 비가 예보됐으나 구체적인 강수량은 나오지 않았으며 전남 전 지역 해안의 파도는 0.5m로 비교적 잔잔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릴 수 있으니 하천변 및 지하차도 접근과 야영을 자제하고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에도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준 기자

“광주공장, 함평 빛그린산단 이전해야” 금호타이어지회, 고용 불안 해소 촉구

“직원들 불안 키우는 행위 중단해야”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는 대형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함평 빛그린산업단지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13일 노조에 따르면 지난 11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열린 조합원 결의대회에서 “유럽에 공장을 새로 짓게 되면 무리한 자금 대출과 불확실한 생산 물량 등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내 공장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사측 입장은 직원들의 고용

불안을 더욱 키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공장 대지를 매각하고 함평 빛그린산단으로 이전을 추진해야만 2500여명 직원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며 “그때까지는 화재 피해를 입지 않은 1공장을 임시로 재가동해 고용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공장은 지난 5월17일 발생한 화재 이후 56일째 가동이 멈춘 상태다. 직원들은 광주공장 재건 혹은 국내 이전을 통해 일자리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정준 기자